

계정혜 참스승 지눌 스님 조명한 다큐소설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
이정범 지음
강건기 감수
김영사 펴냄
1만2천원

이 책은 한국불교 사상 최대 결사인 '정혜결사'를 만들어 고려불교에 자정의 새바람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의 일대기를 그린 최초의 다큐소설이다. 원효와 함께 한국불교의 정오를 환하게 밝힌 중흥조로 평가되는 대인사 지눌, 그는 출가의 초발심을 잃고 승과 속의 경계마저 허물어진 불교계를 정화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고자 한 계정혜의 참스승이었다.

올여름 계정혜 승려들의 도박사건으로 불교계는 큰 충격을 지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청정한 삶을 지키며 용맹정진해야 할 계정혜의 계율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지눌 스님이 살았던 8백 년 전 고려 승단과 지금 승단은 크게 달라졌을까?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행패를 일삼던 고려 승려들과, 계율을 쉽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오늘날 일부 승려들의 모습 중 어느 것이 더 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때일수록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결사의 정신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들의 수행 공동체인 정혜결사를 조직하여 오직 부처님이 정한 계율 속에서 계정혜 삼학에 힘쓰는 바른 수행을 강조했던 지눌 스님의 삶의 궤적이 오늘날 불교계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양양의 칼처럼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던 선종과 교

종을 합일하고, 보조선(普照禪)을 창시하여 참된 수행은 마음 안에 있음을 강조했던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이 책은 지눌의 일대기를 대중들 눈높이에 맞춰 다큐소설로 풀어 써서 독자들이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에 대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첫 시도이다.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어우러져 지눌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지눌에 대한 최초의 소설이다.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보조국사 지눌에 대해 50여 편의 학위논문과 600여 편이 넘는 학술논문, 그리고 10여 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보조사상 세미나 등의 학술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눌 스님의 삶에 대해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자 한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정도 소개된 지눌의 일생을 더듬어 가산과 정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설적 재미를 더하여 구성했다. 또한 학술적인 내용, 불교적인 지식 등도 놓치지 않아서 불교 독자, 역사 독자, 인문 독자 더 나아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큐소설이자 역사소설, 구도소설이다.

고려 중기인 1158년에 황해도 동주군(서흥)에서 국학 학정인 정광우의 아들로 태어난 지눌(아명 목우)은 몸이 몹시 허약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부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불법에 매달렸다. 그러자 병이 차츰 낫기 시작했고, 지눌은 8살 나이에 사굴산문(강릉시 굴산사에서 개창한 산문)의 종휘선사 문하로 출가한다.

열일곱에 비구계를 받고 사굴산에서 수행에 전념하던 지눌은 무신정권을 거처며 수행은 하지 않고 날로 혼탁해지는 불교계를 보며 변민에 휩싸인다. 결국 지눌은 스승 종휘 선사가 임직하자 굴산사에서



『정혜결사』를 일컫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 진영

의 인연이 다행임을 깨닫고 만행의 길을 떠난다. 경기도 광주 근방의 교종 사찰인 관음사에 머물게 된 지눌은 그곳에서 젊은 시절 종휘 선사와 함께 공부한 이안 노장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 머물며 노장 권유로 많은 불서들을 접하게 된다.

1182년 25세의 지눌은 승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선이라는 법계에 올랐으며, 곧바로 개경 보제사에서 있었던 답선법회에 참석하여 많은 대중 앞에서 수행 공동체인 결사를 제안한다.

지눌은 선종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안하였으나, 당장 함께할 결사의 장을 마련할 수 없어 각자 수행처로 돌아가 시절인연을 기다

리기로 한다. 창평 청원사에서 사형인 만학, 득재와 함께 천 일 동안 용맹정진하던 지눌은 <육조단경>을 읽던 중 불현듯 깨닫게 된다. 첫 번째 깨달음이다.

선교 회통의 필요성을 절감한 지눌은 천일 결사를 마친 뒤 교종 사찰인 하가산 보문사에 주석하며 <화엄경> <반야경> 등의 경론 읽기를 참선과 병행한다. 그러던 중 <화엄경> 여러품을 읽다가 두 번째 깨달음이 찾아오고, 선과 교의 근본이 같음을 확인한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세 번째 깨달음을 얻은 지눌은 1190년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며 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의 기틀을 다진다.

지눌은 이때 백장청규에 바탕을 둔 대중 규칙과 일과표를 만들어 도량 곳곳에 게시해놓았다. 그리고 새벽 예불에서부터 공양, 참선, 경전 읽기와 강의, 율력, 취침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에 이르러까지 손수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행의 근본정신을 익히며 실천하게 했다. 그 와중에 공동체 생활이 불편하고 이물스러워 슬며시 결사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사의 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비구도 있었다.

지눌의 결사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스님이 계속 늘어나자, 지눌은 순천 송광산 길상사(송광사)로 정혜결사의 터를 옮긴다. 이곳에서 지눌은 초발심자들이 지켜야 할 경계를 담은 <계초심학인문>을 편찬했다. 이는 고려 승가 전체를 정화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정혜결사를 굳건히 하던 지눌은 1208년 3월 27일 수선사 선법당(지금의 송광사 선법전)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마친 뒤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이런 행장과 수행 이력들이 소설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이 책에 펼쳐져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본성 발견하는 방법 단계 및 상황별로 설명

티베트 린포체의 세상을 보는 지혜

온케이 임규리 린포체 | 이현 옮김 | 문학의 숲 펴냄
1만6800원



이 책에서 린포체는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단계별 상황별로 다양한 강연과 명상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

위대한 스승들은 말한다. "당신은 자비의 화신이며,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이고,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존재를 위해 최상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린포체는 자신의 명상 수행과 전세계 최고의 신경과학 전문가들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습관적으로 형성된, 뉴런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이 이미지는 자신과 타인, 고통과 즐거움, 가집과 못 가집, 매력과 혐오처럼 이원론적 용어로 표현되는데, 마음이 이원론적 관점에 몰리면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조차도 불행 속에 갇혀 버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하지만'이 잠복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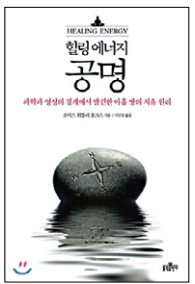
린포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같은 한계의 느낌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한계, 불안, 두려움 같은 느낌은 그저 뉴런들의 수다일 뿐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것은 습관일 뿐이고, 습관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불교 명상과 현대 과학의 사례를 함께 사용하며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내면 치유 하려면 정신적 소통 방식 익혀야”

힐링에너지 공명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지음 | 이민정 옮김 | 불광 펴냄 | 1만5천원



“치유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느껴지면 우리는 일단 내면의 치유 기능을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인체의 언어뿐 아니라 영혼의 언어, 즉 정신적 소통 방식을 익혀야만 한다.”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박사는 전문 치유가가 되기 전 약 20여 년 동안 세포 생물학과 생물 물리학자로서 성공적인 과학자의 삶을 살았다. 호크스 박사는 미 국립 해양수산국 산하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협력해 세포 차원의 치유와 공명 현상을 발견해 냈다.

온갖 환경적 오염 물질에 둘러싸인 세포의 놀라운 탄성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 과학진흥회 선임연구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

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입사체험을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다. 물리적 영역의 비밀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넓히며 과학과 영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성공적인 과학자의 삶에서 전문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호크스 박사가 밝아 온 놀랍고 감동적 여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또한 입사체험의 경험과 피어어 워킹, 발라드와 필리핀의 토착 주술 치유자들과 더불어 수행하며 겪은 신비로운 경험 등 저자의 영적 체험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스스로 각 단계별로 자신만의 치유 능력에 대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조이스 호크스 박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고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두 영역의 에너지가 서로 공명해야 한다고 호크스 박사는 이 책에서 주장한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육신과 영혼의 경계 지점에서 발현하고 심화되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과 신성함의 특징을 한 쌍으로 결합

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홉 개의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홉 쌍의 원리를 통해서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에너지와 상호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감사와 인식, 직관과 행동, 근원 정신과 소통, 소통과 보호, 균형과 조화, 자비와 깨달음, 주의와 집중, 감성과 기쁨, 공명과 변화 등 이 아홉 쌍의 치유 원리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따라 읽으면서 독자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수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신체에 활력 불어넣는 치유 적용 사례 소개

이 책에 소개된 아홉 쌍 원리를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을 대표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치유 본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장마다 그러한 요소와 관련된 실제 치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심각한 안구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사례, 정신분열증의 극복, 고위험군 전암 단계 세포의 소멸, 심각한 죽어간막염에서 회복된 사례, 감사 기도로 사업적 성공을 이룬 사례 등 질병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유 원리이다.

또한 각 장의 사이사이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를 통해서 중심 내용과 수행방법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 장의 마지막은 간단한 연습 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가 생명 작용의 원리와 영성이라는 두 세계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건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병에 걸리더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과 의식 상태를 훈련하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고유의 언어는 물론 세포들끼리 소통하고 결합하며 접촉하는 방식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본 모습을 바로 보고 통찰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치유법을 터득함으로써 심오한 내면의 여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는?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 국립 보건원을 거쳐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국립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 과학진흥회 회원이기도 한 조이스 박사는 저명한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세포 차원의 치유와 공명 현상을 발견하여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4년부터 전문 치유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민현	현진문화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트너스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9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친	불광출판사
10	맛지마 니까야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www.unjusa.com
윤주사 (02)3672-7181

역사, 철학, 종교를 종합무진하는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획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불교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발전의 역사

경제사와 문화사, 사상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불교 교양 인문서!

자현 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 불교는 인류 문명 최초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 문명권에 걸쳐서 존재했다. 그러므로 불교는 상업자본이라는 단일한 것대로 이해되는 동시에, 인도적인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국적인 인성론의 가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

자현 스님 지음 / 320면 / 15,000원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하여 삼학, 삼독, 삼법인, 바라밀, 오정심관, 삼십칠조도품, 연기, 무상, 육도윤회까지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 읽기

“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꾸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 288면 / 14,000원